



고혈압·당뇨병 환자 1,100만명 시대,

줘야 할 돈도 못 주게 생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료환자 725만여명, 당뇨병 진료환자 369만여명
- 19개 시군구 대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및 효과 뚜렷
- 매년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 발생 ... 올해 미지급금 16억원 추산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원만 반영
- 인재근 의원 “줘야 할 돈도 못 주게 생겨 ... 예산 확보 대책 마련해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06호 / TEL 02-784-8091~3 / FAX 02-6788-7120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합이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료 환자는 725만 869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627만 4,863명 대비 약 98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8년 302만 8,128명에서 2022년 368만 7,033명으로 약 66만명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시·도단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2009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환되어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일차의료기관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이하 등록관리 환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했다. 2018년 20만 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 9,37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0만명에 육박(38만 1,196명)한다. 2021년 기준 등록관리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92.9%, 혈당 조절률은 55.0%로 일반 환자의 조절률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오히려 환자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

<표1> 환자인센티브 소진 시기 및 미지급금 규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미지급 금액	2억원	7억원	14억원	12억원
소진 시기	12월	11월	10월	9월

그런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인센티브는 16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 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붙임1. 연령대별 고혈압, 당뇨병 진료 환자 현황(2018~2022년)
- ※ 붙임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 19개 시·군·구
- ※ 붙임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관리 환자 현황

[붙임1] 연령대별 고혈압·당뇨병 진료 환자 현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 인제근 의원실 재편집)

1. 연령대별 고혈압 진료 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6,274,863	6,512,197	6,710,671	7,018,552	7,250,869
0~9세	433	437	184	526	517
10~19세	5,996	5,926	4,899	6,367	5,801
20~29세	32,871	36,422	37,371	42,048	42,798
30~39세	180,265	195,270	198,046	210,890	215,534
40~49세	763,930	783,569	793,068	823,731	841,773
50~59세	1,730,023	1,771,096	1,782,220	1,811,037	1,827,122
60~69세	1,864,252	1,954,629	2,066,273	2,216,479	2,331,335
70~79세	1,422,984	1,459,929	1,487,368	1,516,613	1,567,595
80세 이상	692,484	744,952	790,210	844,127	922,341

2. 연령대별 당뇨병 진료 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28,128	3,213,412	3,334,989	3,537,601	3,687,033
0~9세	963	974	935	1,166	1,137
10~19세	10,098	10,597	10,151	12,483	12,781
20~29세	28,888	32,628	35,005	40,855	42,657
30~39세	110,794	119,664	121,568	130,090	131,828
40~49세	365,404	377,957	380,979	398,450	406,088
50~59세	808,825	846,042	854,128	874,688	881,005
60~69세	919,949	987,801	1,052,367	1,142,960	1,206,054
70~79세	700,223	739,620	764,025	794,874	837,851
80세 이상	266,052	297,167	321,832	354,255	403,473

[붙임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 19개 시·군·구

(출처 : 질병관리청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선정 연도	지역
2009년	(1개 지역) 경기도 광명시
2010년	(3개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안산시
2012년	(15개 지역) 서울시 성동구, 광주시 광산구, 울산시 중구, 세종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동해시, 홍천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주시, 장성군,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경상남도 사천시, 제주도 제주시

[붙임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관리 환자 현황

(출처 : 질병관리청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누적등록자수	440,736	480,920	527,958	571,714	618,712	651,653
등록관리자수	209,454	237,220	272,311	310,152	349,377	381,196
고혈압	125,276	142,899	165,896	191,672	216,997	238,473
당뇨병	15,083	18,117	21,933	26,258	31,790	36,504
고혈압+당뇨병	69,095	76,204	84,482	92,222	100,590	106,219